



8·15와 일본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본지 논설위원

지난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평양에서 열린 일본 수상 고이즈미와의 회담에서 납치 일본인 문제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5명의 일본인을 돌려보냈다. 외교 사상 유례없는 너무나 순진한 태도였다. 김 위원장은 일본이 한반도에 행한 36년간의 흉악한 범죄역사에 비추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으로 기대했던 것이었다.

일본정부는 해방이 된지 거의 60년이 되는 오늘날까지도 강제로 끌고 간 수십만 노동자나 위안부 문제를 사과하는 커녕 공식적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천황이 "과거의 불행한 일에 대해서 심히 애석하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이 고작이었고, 일본 당국은 "잘 조사해보겠다", "증거서류가 없다"며 얼버무리었다. 특히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은 지금도 일본 대사관 앞에서 데모를 벌이며 그 죄의 정식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일절 무시하고 있다.

김정일의 납치고백은 일본에게 과거의 면죄부 이상으로, 피해국과 가해국의 위치를 뒤바꿔주고 하고 말았다. 일본의 언론매체는 매일처럼 복한을 악마의 나라로 몰아붙이며 반북감정을 부추기고, 일부 정치인은 또다시 식민지통치가 옳았다고 소리높이 외치기 시작했으며, 모든 한국인에 대한 모멸감으로 확장시키고 있다.

일본과의 우호증진은 필요하다. 그러나 맥아더 장군이 "일본은 강자에게는 비굴하고 약자에게는 오만하다"라고 평가한 것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방일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했는데, 남북 두 지도자가 좋은 것이 좋다는 식으로 이리저리 일본에게 알보이고 있는 않은가 걱정이다.

모든 집단은 자신에게 알맞은 문화를 만든다. 집단은 일차적으로 문화를 생산하지만 결코 창조적인 생산 활동은 아니다. 문화는 몸에 맞는 옷과 같아서 타문화를 수용·소비하면서 집단의 규모나 특징에 맞게 수정되고, 맞지 않으면 소멸한다. 그것이 문화 재생산이다.

우리 군의 짬밥문화는 반세기 이상 청년 남성 집단의 대표적인 문화가 되었다. 사전에도 없는 '짬밥'이라는 말은 밥찌꺼기라는 말의 변형으로 초기에는 어려운 군대생활을 일컫는 말이었지만, 지금은 관료이나 경륜에 기초한 위계·서열을 표현하는 말로 군대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사용된다.

이번에 육군은 매우 파격적인 병영내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다양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금지항목을 나열하고 있다. 특히 사병간의 명령, 지시, 간섭 금지가 주목할 만하다. 이제 고참은 신참에게 구타나 일처리는 물론이고, 식기 튀기나 심부름도 사하지 못하게 했다. 실제로 병사의 계급은 상병하복의 위계를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기간과 역할을 나타내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등병과 병장은 수평적 동반자 관계이다. 육군의 '사교예방 종합대책'은 이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 있다.

세상이 변했고, 사람 또한 많이 변했다. 오늘



불자 세상보기

구승희

동국대 교수·윤리학

'짬밥문화'의 문명화를 위하여

날 군인은 장교, 사병 할 것 없이 신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이들은 지구촌, 세계화 그리고 현대의 기술이 일구어 낸 다원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다.

일부에서는 '군대는 유희집단도 아니고, 보이스카우트도 아니다. 군대는 국가와 민족의 안위를 책임지는 전위집단이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강과 규율을 해체하면 어떻게 훈련을 하고, 전쟁을 하겠느냐'는 우려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바로 1년전 서해교전에서 목숨을 바쳐 용감하게 싸운 우리 해군 장병들은 지휘관

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전투에 임했다. 우리 신세대 장병들은 우리 퇴역들의 염려와는 달리, 충성심, 인내심, 단결력에서 추호의 빈틈도 없었다. 그러므로 이런 우려가 오히려 야만적인 군사문화에 익숙한 우리 퇴역들이 종종 범하는 과장된 짬밥문화일지도 모른다. 이번 행동강령은 '짬밥문화를 문명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문명화(being civilized)란 '시민이 되게하다'라는 말이다. 군인의 역할과 임무의 특성상 군대는 전체주의적 통합공체일 수밖에 없다. 그

열린마당 포교원 별원화 이후의 성과와 과제

포교원은 8월 18일 '포교원 별원화 이후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포교정책연구회를 개최했다. 포교부장 일관 스님의 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 지홍(조계사 주지)·계성(전등사 주지)·퇴휴(법장사 주지)·지종(범

어사 포교국장) 스님과 임동현 중앙신도회 기획실장 등 참석자들은 신도교육 체계화 방안과 관련 '품계'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리=권형진 기자>



18일 열린 포교정책연구회에서 참가자들이 포교원 별원화 이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포교체계 정립, 시스템 정착 과제

발제-일관 스님(포교부장)

94년 종단 개혁이후 포교원이 3원(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체제로 분리된 것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맞게 포교 영역을 전문화하고, 삶의 질 변화에 따른 종교 환경의 변화에 따라 포교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함으로써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포교원 별원화 이후의 성과는 크게 다섯 가지를 들 수 있다. 우선 종단의 포교 전담 부서로서 자리매김했다는 점과 포교인력의 개발, 양성, 관리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계종 신도에 대한 종단 책임 강화와 조계종 신도에 대한 입교·교육·수계·등륙·조지·신행·포교의 체계를 수립했다는 것도 성과다. 아직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지만 적극적인 포교전략 수립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반면 3원 분립에 따른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시스템 정착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포교자원의 결집과 포교역량의 극대화, 수행 중심의 포교 시스템 정비, 조계종 신도의 수행과 교화를 통한 가치 실현 시스템 개발, 신도기초교육을 중심으로 한 신도의 육성과 조직화, 포교 및 신도 정책의 중앙·교구·사찰에서의 일관된 집행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지홍 스님(조계사 주지, 전 포교부장)

파라미터 설정 가장 큰 성과

가장 큰 성과는 청소년 포교단체(파라미터)를 하나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도단체를 종단 내에 귀속시키고 소속감을 갖도록 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신도 교육 체계화도 굉장한 진경을 많이 이룬 부분이다. 과제가 있다면, 불교는 수행의 종교이므로 수행체계를 정리해서 수행을 체계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

포교원이 추진하고 있는 '입교→기초교육→수계→등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많다. 품계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많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일 것이다. 또 주지가 바뀌면 교육 체계와 내용, 목표가 바뀌고 심하면 없어지기도 하는데, 신도 교육 부문만은 안정적으로 가야 한다.

퇴휴 스님(서울 법장사 주지)

신도들에 품계된 사명감 부여

포교원 별원화 이후 성과가 꽤 많았지만 하나 경계할 부분이 있다. 개혁 종단 초기의 생동감이

떨어지고 관료조직화 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그것이다.

포교원에게 추진하고 있는 신도교육 체계화의 경우 조계종의 영역을 스스로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 기본교육을 모두 받아야 한다는 원칙은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 무조건 교육하고 수계 받고 등록하라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기독교 집사나 장로는 자부심이 대단하고 엄청난 사명감을 갖고 있다. 불교는 기껏해야 '보살' '거사' 밖에 없다. 신도회 임원을 하다 그만두면 역시 '보살' '거사' 다 보니 임원 때는 열심히하다가 그만 두면 절에 안 나와 버리기도 한다. 품계를 뒤서 자부심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종 스님(범어사 포교국장)

교육에 따른 '자격' 부여

일선에서 포교활동을 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으려고 했는가 묻고 싶다. 7-8년째 포교국장을 하면서 느낀 것은 현장의 목소리를 한 소리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신도 교육 체계화와 관련해서는, 아무리 포교원에서 체계화시킨다고 해도 신도들이 내가 공부할

해야겠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7-8년 공부한 사람이나 갖다먹은 사람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기독교 집사처럼 '연수'나 '교육'에 따라 자격이나 품계를 주는 것이 어렵다. 예를 들어 신도회장의 경우 교육은 어느 정도까지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둘 수도 있었다.

임동현(중앙신도회 기획실장)

열심히 땀 흘려야 배워야

해마다 '○○의 해'를 정해 역점 사업을 추진하는데 정작 신도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책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교양대학의 커리큘럼도 불교 교리에 대한 지식 습득과 예절에 치중하고 있다. 먼저 신도교육의 목표가 세워져야 하고, 조계종에서는 어떤 신도를 왜 원하는지, 신도상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교육 체계와 내용이 따라가야 하는 것이다.

불교의 품, 종단의 품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것이 포교라고 한다면 스스로 열심히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방식의 개발보다는 직접 종단에 관계되고 연결된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인 지원함으로써 스스로 종단의 품을 좁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암투병 불구 전시회 연 스님



프랑스 등지를 오가며 서양화를 그리다 불기에 귀의한 무에 스님(양산 죽림선원)이 암투병에도 불구하고 작가생활 40년을 결산하는 전시회를 8월 23-27일 부산 국제신문사 문화센터에서 개최한다. 97년 '군더더기 없는 그림을 그리고 싶다'며 출간한 무에스님은 한·중·일 3국의 달마도를 연구하며 '그림의 원칙과 기예가 담긴' 달마도를 그려왔다. 이번 전시회에는 출가 전에 그린 서양화와 출가 후 작업한 불화가 함께 선보인다.

장군숙예

시주함 턴 50대, 불잡히자 폭력



사찰의 법당 안에 있는 불자들의 불전함을 틈타 사찰 관계자에게 들켜자 폭력을 행사한 정씨(53) 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정 씨는 8월 17일 충북 진천군 덕산면의 모사찰 법당에서 불전할 열쇠를 부수고 시주금을 훔치다 신도 박모 보살(43)에게 들켜자 주먹 등으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천경찰서는 정씨를 폭력 및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Table with 7 columns and 3 rows of real estate listings. Each listing includes location, area, price, and contact information. Columns include: 1. 사찰(급)안내, 2. 사찰(급)안내, 3. 포교당(급)안내, 4. 포교당(급)안내, 5. 사찰 안내, 6. 사찰 안내, 7. 포교당 안내. Rows include: 1. 사찰(급)안내, 2. 사찰 안내, 3. 포교당 안내, 4. 사찰(급)안내, 5. 사찰 안내, 6. 사찰 안내, 7. 사찰 안내.